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5일 목요일 음 9월 20일 (12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1°C, 낮 최고 기온은 18-20°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precipitation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day/night lengths.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UV index and air quality.

월드뉴스

'백수의 왕'도 굶어... 영양실조 호랑이 치료

민가 출몰해 가족들 잡아먹어



멸종위기종 수마트라호랑이.

인도네시아 당국이 민가에서 가족을 잡아먹던 수마트라호랑이를 붙잡아 영양실조 등을 치료한 뒤 헬기에 실어 고지대에 방사했다.

로 방사를 결정했다.

4일 수라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8월 24일 수마트라섬 북부 남타파놀리군의 한 마을에서 암컷 수마트라호랑이가 포획됐다.

당국은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 구능 르우제르 국립공원의 해발 1320m 수마트라호랑이 서식 추정지가 방사구역으로 적합하다고 봤다.

주민들이 '스리 나빌라'라고 이름 붙인 이 호랑이는 올해 5월부터 민가에 출몰했고 8월 4일에는 개와 뱀을, 같은달 15일에는 염소를 잡아먹었다. 이에 천연자원보호국 관계자들이 출몰해 함정을 만들어 스리 나빌라를 붙잡은 것이다.

북수마트라 천연자원보호국장 시안투리는 "수마트라호랑이 서식 추정지에 풀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20시간 동안 이송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세 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호랑이는 영양실조로 많이 아팠고, 탈수, 빈혈, 간에 문제가 있었다.

멸종위기종인 수마트라호랑이는 산림파괴와 계속된 밀렵으로 야생에 400~6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

당국은 두 달 동안 호랑이를 치료한 뒤 10월 30일 검사 결과를 토대

목요일론



이 경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견

'손에 쥐면 쓰기 마련, 저축하면 늘기 마련'이란 말은 1970년대 저축장려 포스터의 표어다. 당시 학교에서는 '근검절약'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쳤고, '저축의 날' 등 저금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아니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자금을 만들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위해 투자한다.

에서 지출은 확대해야 하기에, 그 차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을 제외하고, 2019년 계획 대비 925억원이 증가된 총 2925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보였다. 둘째, 지방채 상환 계획 또한 조세부담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수립됐는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1~2024년 상환액 1조3420억원 중 2023년 상환액은 4818억원으로, 35.9%에 이른다.

지금은 '빚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남의 돈인 '빚'을 어떻게 이용하는냐에 따라 자금 활용과 미래의 가치 창출이 좌우되는 세상이니,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지방채 발행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열린마당

나쁜관광 좋은관광



강 인 철 제주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 위원장

대신 저품질 제품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메밀꽃 필 무렵



이 상 현 서귀포시 안덕면장

개별과 단체는 소비자(관광객)의 선택 권한이다. 마치 일부 단체관광객과 여행사의 문제점을 전체 단체관광객의 문제로 확대함을 경계해야 한다.

제주는 메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선점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메밀꽃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말 그대로 '메밀의 꽃'이다. 이효석 작가의 소설 제목처럼 '메밀꽃 필 무렵'은 언제일까? 꽃은 1년에 6월과 10월에 두 차례 꽃을 피우는데, 소설의 배경은 가을 깊은 어느날이다.

제주 주산지인 메밀은 많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축재, 가공, 유통 등이 강원도에 밀리는 현실은 아쉽기 그지없다.

안덕면에서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면정발전계획에 메밀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안덕면 중산간 들판의 메밀꽃은 아직도 하얀 자태를 자랑하며 예쁘게 피어 있다. 이제 다시 메밀산업을 재조명하고 또 다른 웰빙식품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런데 메밀 생산량은 제주도가 전국 생산량의 43%가 넘는다. 제주도 생산량 중에서도 23%이상은 안덕면 광평리를 중심으로 한 중산간 마을에서 나온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Cheilsa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s portrait, a price list for various services, and a map of the location.

Boraflower advertisement for a nationwide flower delivery service, featuring a storefron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